

소멸과 생성의 美學

—玄鎮健의 國土巡禮記 문제—

玄 吉 彦

目 次

- | | |
|-----------------|--------------------|
| 1. 憑虛文學과 國土巡禮記 | 3. 檀君聖跡巡禮 |
| 2. 古都巡禮·慶州 | 3.1 五千年 역사의 통찰 |
| 2.1 과거와 현재 | 3.2 황홀한 상상력의 힘 |
| 2.2 소멸과 생성의 변증법 | 3.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
| 2.3 예술과 정치성의 통일 | 4. 역사의 이념화와 그 문학 |

1. 憑虛文學과 國土巡禮記

憑虛는 1926년에, 「조선 문학인 다음에야 조선의 땅을 딛고서야 하며, 현대문학인 다음에야 현대정신을 힘있게 호흡해야 한다」고¹⁾ 문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도 현진건 문학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정신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혼>과 <현대정신>은 바로 그의 문학에서 추구되어온, 조선문학의 변하지 않는 측면과 변하는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 것인데, 이 변하지 않는 측면으로서 조선정신은 바로 민족주의적 이념과 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은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체득되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의 의미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는 작가와 기자로서 일생을 살아오는데 소설과 신문기사에 전심하였고 문학논쟁 같은 일에 끼이기를 꺼렸다. 그는 직접 「古都巡禮·慶州」와 「檀君聖跡巡禮」를 통하여 민족사의 실상을 확인하였다.²⁾ 그의 문학은 현실과의 부단한 싸움에서 이루어졌

師範大學 助教授

1) 「개벽」 65, 1926.1, p. 134.

2) 1929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주지역을, 1932년 7월 8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같은 해 10월 23일에 단국성적에 대한 순례여행을 했다.

고, 그가 처한 시간과 공간은 문학의 과제가 되었다.

1920년대 그의 초기 소설에서³⁾ 드러나는 사회와의 불화관계는, 변동기 사회에서 자기인식이 투철하지 못한 지식계층의 취약한 삶의 양상이었지만, 그것은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일제 침략이라는 충격적 사태에 처한 변동기 사회와 그 시대의 삶의 추구였다는 점에서 시대와 그 사회에 대한 탐구였다. 1920년대 중반기부터 그는, 사회에 대한 이 불화의 대응 양식을 극복함으로써, 사회적 자아로서 자기의 삶을 정립한다. 대부분 단편소설에 드러나고 있는 바처럼 사회의 구체적 인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탐구의 자세로 대응하면서, 사회적 자아로서 자신의 문학적 진실을 확보하면서 민족의식을 이데올로기화한다.

1930년대에 와서, 군국주의 최악의 시대에,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제약을,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유토피아 의식으로 극복하면서, 장편소설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추구한다.⁴⁾ 여기에 역사소설을 통하여 그러한 민족의식을 초월적인 양식으로 이념화하면서, 또한 그 전에 이미 가졌던 관념으로서의 민족을 실체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이러한 국토순례기행을 통하여 구체화시킨다.

국토순례는 애초에 경주를 비롯하여 백제와 고려의 유적지와 단군성적에 걸쳐 계획되었으나, 경주와 단군사적의 순례에 그쳤다. 이러한 그의 순례 여행은, 그가 일하던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 민족의 시조인 <檀君王儉>의 立論을 확립하기 위해 백두산 캠페인을 벌이고 백두산 참관대를 파송, 그 대원인 최남선으로 하여금 <白頭山觀參>을 연재,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던 그 당시 정황과 관계된다. 또한 1934년 1월 평안남도 江東에 있는, 檀君陵이 퇴락한 것을 修築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리면서, 당시 사회부장인 憑虛를 檀君聖跡 순례차 특파시켰다.⁵⁾

1930년대 식민통치 정책과 그에 대한 일련의 대응양식은, 불가피하게 전향의 논리에 안주하던지, 地下에 숨거나 외국으로 나가든지 하는 택일의 기로에 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 대처하는 내적 자구책이 성숙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메시아니즘과 한글운동을 비롯한 民俗 등 國學復興을 통한 민족의 주체적 의식을 제고하려는 문화운동이었다. 여기에 古都巡禮의 시대적 의미가 있다.

그의 문학은 삶의 현실 문제에 근거하여 생경한 계급주의 이론과 복고적인 민족주의에 편향되지 않았다. <사람은 우선 먹어야 한다>는⁶⁾ 생존의 문제를 문학의 제일 과제로 삼을 때에, 현실을 관념으로 의식할 수 없었으며, 문학을 이념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없었다. 그러기에 그는 당시 유행하던 프로문학의 허구성이나 민족주의 명분론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었다.⁷⁾ 그는 상아탑 속에서 은폐리부는 문학을 거부하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만드는 문학>을 주장하였다.⁸⁾

3) 주로 그의 첫 창작집 『墮落者』(조선도서주식회사, 1922. 11)의 경우.

4) 현길연, 「현길연 소설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84. 12), pp. 157~160.

5) 『동아일보사』(卷一), (동아일보사, 1975. 4), pp. 308~310.

6) 「이러쿵 저러쿵」, 『개벽』 44호, 1924. 2.

7) 「물뺏듯는대로」, 『동아일보』, 1926. 1. 1.

8) 윗글.

그러므로 그는 현실의 문제에 예민하면서도, 문학이 이념에 봉사하는 것을 배격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그 이념을 추종하는 문학이 아니라 바로 프로레타리아 자신의 문학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역사를 실체이면서 살아있는 현재를 인식하는 입장에서 명백하다. 이는 실증성을 중시하는 역사학도로서의 태도에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피압박 민족의 민족적 자아를 확립하는 태도로서는 의미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는 걸으로 황폐하여 있는 과거의 유물 유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깨달으며 그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그의 문학정신에 자리잡혀진 역사의식을 古都巡禮紀行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역사소설의 문제와 관계지워 검토할 것이다.

2. 古都巡禮·慶州

2.1. 과거와 현재

이 글은, 1929년 7월 8일 서울을 떠나 대구를 거쳐 경주 일대와 불국사에서 7월 12일까지 신라 고적과 유물들을 순례하고서 쓴 것인데, 동년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13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애초에는 경주뿐만 아니라, 조선, 백제, 고구려, 고려의 古都인 평양, 부여, 개성, 구월산까지 순례할 계획이었으나,⁹⁾ 경주 순례 이후에 1932년 단군성적순례시 평양 구월산을 순례하였고, 개성이나 부여에 대한 순례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의 경주 여행은, 단순한 고적답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오늘의 현실에서 새롭게 하려는 의도임이 우선 드러난다.¹⁰⁾ 화려했던 옛날의 그 문화에 접하는 감회는, 결코 황폐한 현실에서 오는 감상같은 어린 마음이 아니라, 곁에 드러나지 않은 민족정신의 탐구라는 적극적인 데 있었다. 한줌의 흙과 한조각의 돌맹이에도 뜻깊은 역사를 찾아내려는 역사학도의 자세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일원으로서 애정으로 그것을 다시 만져보는 교호작용에서 얻어진 충격을 소중히 간직하려하였다. 속임없는 山河의 모양을 보아, 우리 조상의 포부를 상상하고 나타난 유적을 어루만지며, 가슴에 뛰는 피소리를 들으려는 것이¹¹⁾ 古都巡禮에 임하는 그의 마음이었다. 그것은 객상에 대한 뜨거운 애정에서, 역사라는 客體와 민족의 일원이라는 主體의 일체감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민족의식을 관념이 아닌 실체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구한 역사에 비해 <현실의 하찮음>을, 버스 승객, 차장, 매 정거장에서 만나는 금태들은 역장과 조수들의 어린애같은 모습에서, 장난감 기차와 광대무변한 자연의 대비를 통하여 인식한

9) 『동아일보』, 1929. 8. 19.

10) 『古都巡禮·慶州』 其一, 동아일보, 1929. 7. 18.

11) 원문.

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 주게 되고, 그 신뢰성은 다시 현실의 황폐함을 이기게 해 준다. 그러기에 그는 망국인으로서, 화려한 역사의 고도 신라를 찾으려 하면서 부끄러움과 분노와 자책에눌려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강렬한 힘이 되어 자신을 건강하게 지탱시켜 줌을 깨닫게 된다.

이 순례기행문에서, 과거와 현재가 수없이 넘나들게 됨을 보게 된다. 황폐한 현실에서 화려한 과거를 보게 되는데, 이는 회고의 달콤한 안일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잠재워지던 <조선혼>을 깨워 놓는 것이다. 여기에 역사는 이념화되면서 현실을 무장시키는데 한몫을 하게 된다.

그 충격은 현장성으로 인해 보다 강렬하다. 그러기에 그는 어두운 시대에 古都巡禮를 떠난 것이다. 황폐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걸음으로 잠잠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2.2. 소멸과 생성의 변증법.¹²⁾

7월 10일, 그는 경주시내 여러 고적을 구경한다. 박물관에서 여러 유물을 대하여서 자신은 서투른 시골뜨기임을 자처한다.¹³⁾ 유구한 역사에 비해 현실의 하찮음을 찬란한 유물유적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金冠, 玉蟲의 馬鎧 등 여러 금패물과 장신구, 유리곰보에 대한 경의와 감탄, 특히 黃玉碧玉笛에 대해서는 끝없는 상상을 펼친다.¹⁴⁾ 異次頓의 供養塔에 대한 감회와 봉덕사 대종의 <愛子の 犠牲>에서, 예술을 위하여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는 신라인의 삶을 생각한다.¹⁵⁾ 경주의 地勢에서, 외적의 침입을 안중에 안둔 웅대한 기백을 상상하였고,¹⁶⁾ 안압지를 보면서, 옛 궁전의 <무지개같은 몽상>에 잠긴다.¹⁷⁾ <청아한 노래가락>의 꿈과 <무지개같은 몽상>에서 깨고서, 낚싯대를 드리고 있는 태공의 무심을 통해, 흘러간 역사의 애상 속에 젖기도 한다. 화려한 옛일은 사라지고 단지 水面만이 옛날 일을 그리워 우는 듯한 감회 속에 역사의 무상을 서정적으로 처리하여 버린다. 무영탑전설을 사랑과 예술에 얽힌 로맨스라고 극찬하고¹⁸⁾ 석굴암의 예술성에 압도된다.¹⁹⁾

이러한 점은, 경주의 風情과 유물들의 예술성에 탐닉하여, 현실의 황폐함을 낭만적 인식으로 은폐해 버리는 나약한 역사의식의 소산으로, 문화의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12) N.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 158.

13) 「古都巡禮・慶州」(其二).

14) 뒷글(其三).

15) 뒷글(其四).

16) 뒷글(其五).

17) 뒷글(其六).

18) 뒷글(其九~十).

19) 뒷글(其十二).

있으나,²⁰⁾ 한편 황폐한 현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창조적 생명력을 분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에게서, 예술이 강렬한 역사의식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저력으로 강하게 살아있음은 「무영탑」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영탑」의 기층구조는, 경신으로 대신되는 신라사회의 지배이념과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주안의 대립, 신라의 지배문화의 중추 세력으로 俗化된 佛敎와 이에 맞서는 아사달의 예술정신의 대립이 서로 호응되면서, 신라사회의 지배문화의 이념과 이를 초월 극복하려는 예술과 사랑의 결합 양식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예술성은, 현실의 지배문화와 대립되는 창조적 힘을 지니고 있는 강렬한 에너지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²¹⁾

이런 점에서 국토순례에 나타난, 신라문화에 대한 예술주의적 인식은, 현실을 외면하고 미에 탐닉하려는 반역사주의적 유약성이 아니라, 황폐한 현실을 부정하여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는 초월의 미학인 것이며, 강한 역사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에서 확인된다.

(……) 이 대도 합한 뒤에야 소리가 남이 잊슬지니 성왕이 소리로써 텅하를 다스릴 상서인 즉 왕도 이 대로 통소를 만들어 불게만 되면 텅하가 반듯이 태평해지리라 하였다. (……) 이대로써 통소를 만들어 월성의 텅존고(天尊庫)에 감춰두었는데 이 통소를 불 때에는 병난도 끈치고 악역도 나흐며 가물 때는 비가 오고 장마질 때는 날이 개이며 (……) 그 이름을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하여 국보로 위했다 한다.²²⁾

이와 같은 전설에서, 국난을 다스릴 수 있는 피리는 단지 주술적인 피리가 아니다. 현실의 대응 양식으로서 병난과 풍우를 다스리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예술성에 대한 인식의 일면은, 첫날 경주에서 유물 유적을 돌아보고 여관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의 감회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1) 달빛도 싫다. (……) 몸은 한껏 피로하지마는 흥분된 신경은 좀처럼 잠을 일울 수 없다. 잠이 야 언제라면 못 자랴, 하고(……) 여관을 나섰다. (……) 정말 모든 것이 죽는 듯하다. 구름이 흐르는 서쪽 한울가에 초생달이 으스스레 비친 양도 죽음을 우는 눈동자인 듯. (……) 싸히고 싸인 죽엄 가운데 움죽이는 오직 하나의 산 목숨인 나의 숨길도 질식할 듯하다.

(2) 廢墟의 生命. 무궁한 감개가 가슴을 누른다. 한참 당년 삼국을 통일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와 예술을 창조해 낸 이곳이 이대도록 소리업시 냄새업시 죽어 넘어질 줄이야!

죽었더니 말이 되느냐. 너는 그 찬란한 유적을 보지 못했느냐 (……) 새로운 생명이 쏘아 올라야 만 조상 잘 둔 큰 소리도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데! 그 새 생명은 어데서 움죽이는고!²³⁾

古都의 문화유산에 대한 찬탄과 허무감이 크면 클수록 망국의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은 죽은 것

20) 최원식, 『현진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3), pp. 70~71.

21) 「무영탑」에서, <역사 창조의 힘으로서 예술성>에 대한 논의는 『현진진 소설 연구』, pp.151~153을 참조할 것.

22) 「古都巡禮·慶州」(其三)

23) 윗글(其七)

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애이고 절망이고 폐허이다. 패망한 왕조에 대한 허무와 부끄러움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대할수록 더해진다. 예술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비애감은 식민지 치하의 작가로서 일상적인 감회이다. 그러나 憑虛는 그러한 감회를 통하여 감정을 카타르시스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 폐허의 상황에서 다시 생명을 의식하였다. 소멸에 대한 생성의 순환적인 인식은 자연의 질서에 대한 신뢰와, 역사의식을 통한 미래에의 확신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 가운데 움직이는 질식할 것같은 오직 하나의 목숨인데도(1) 움직이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2) 여기에, 죽음의 현장성 너머에 있는 생명을 추구하는 열정은 현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는 예언적인 초월의식과 만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무영탑」의 초월의식과 통한다.²⁴⁾

이러한 예술성이 어떻게 예언적인 역사의식을 동반하여, 소멸이 새로운 생명을 기약하는 창조적인 변모를 가능하게 하는가를 설화에 대한 의식에서도 드러난다.

2.3. 예술과 정치성의 통일

신라 기행에는 「萬波息笛」 외에 「奉德寺 대종의 愛子犧牲」「天宮寺傳說」「無影塔傳說」 등이 인용되고 있다. 이 전설들은 朴堤上의 충절을 담고 있는 「彌述嶺傳說」로 통합된다. 위 전설들의 匠人意識은 朴堤上의 충절과 합치되면서, 예술이 바로 역사 창조의 저력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예술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된다.

(……) 아, 거리는 지금에도 그 부인의 망부석(望夫石)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행인의 발길을 멈춘다 하거니와, 친추에 빛나는 의지를 남기고 왜국목도(倭國木島)에서 연기로 살아진 박제상의 의혼렬백(毅魂烈魄)도 지금 어디에서 헤매는고!²⁵⁾

박제상의 의기와 그 부인의 정절을 다시 생각할수록, 식민지 현실의 아픔은 더욱 고통스럽고,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부끄러움은 더욱 큰 것이다. <차라리 제립의 개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되지 안겠다! 신라의 형편은 달게 바들지언정 왜국의 작록은 먹지 안겠다!>고 한 박제상의 우뢰같은 호통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기개를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비유하였다.²⁶⁾ 그 무지개는 아름다운 詩이면서 새로운 역사의 서곡인 것이다.

이러한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의 감회는 단지 회고의 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다. 가신 님을 그리워 속절없이 나는 피눈물에 목숨이 자자진다 하여도 죽은 후에는 님의 넋을 따르겠다고

24) 아사달은 현실의 지배이념 때문에 좌절한 아사녀와의 사랑을 그녀의 모습을 돌에 새김으로 극복하려 한다. 여기에 예술과 사랑의 합일이 가능하게 되고, 그 힘이 현실의 지배이념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든다.

25) 「古都巡禮·慶州」(其十一)

26) 윗글.

하였듯이, 자신의 의기를 님의 의기와 합치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신라 古都의 유물 유적에 대한 감회나 의식은 그의 역사의식의 소산이었으므로 정치성과 합치되면서 식민지 상황의 극복이라는 적극적 문화의식을 낳게 한다. 그러므로 그의 글은 여린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강하다. 망국인의 한탄같이 보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미래에 전개될 역사에 참여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예술성과 정치성의 이러한 결합은 그의 역사소설 「무영탑」에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명의 藝人 아사달이 강력한 신라의 지배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의 장인의식에 있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사랑의 적수였으나 새로운 신라를 이룩할 수 있는 영웅적 인물인 경신과의 화합에서 가능했던 것이다.²⁷⁾ 여기에 예술과 정치의 바람직한 화합을 보게 되며, 그것은 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초월의 에너지>를 마련해 주면서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기에 작자는, 영웅과 藝人が 사랑이 자연스럽게 화합되는 데서 병든 신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러한 「무영탑」의 기본구조가 바로 「古都巡禮·慶州」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피상적으로는 예술과 정치는 상반되는 것인데도, 어두운 시대를 열려나가는 데는 이 두 힘의 결합에서 보다 강한 힘이 분출될 수 있다는, 한 문인의 시대인식을 이 기행문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憑虛가 추구했던, 문학은 형식과 내용이 합일되는 데서만 자족적인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형식과 내용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그의 이러한 문학관은 사회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와 통한다. 「古都巡禮」에 나타난 이러한 점은 바로 그의 문학관에 닿아있는 것이다.

(……) 찻날 림시에 봉황대에 올랐건만 잔뜩 접흐린 일피에 지른 안개는 나의 눈까지 흐리고 말았다. 모시를 넘어 노흔 듯한 희미한 강줄기, 몽롱한 무덤의 봉오리, 쓸어지는 듯한 초가집 흔허가 도 모지 눈물겨웁다. 어제밤에 부여잡고 울든 냇서울은 오늘 아침에도 눈물을 거두지 안흔 듯, 그러지 안하도 구슬픈 내 가슴이어든 심란한 이 정경에 어찌 견디랴.²⁸⁾(……).

경주에서 불국사로 떠날 때, 흘러간 영화와 찬란한 문화의 자취에서 느끼는 강렬한 이 허무의식은, 어두운 시대의 지식인의 좌절을 드러낸 <눈물>이지만, 그는 이 눈물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에의 의지를 얻게 된다. 그것은 설화를 통하여, 석굴암에서 맞이하는 동해의 해돋이 광경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掛陵武臣石像의 雄渾하고 수려한 모습에서, 구체적인 신념으로 간직하게 된다.

27) 무영탑에서, 아사달 주만 경신은 사랑의 삼각관계를 형성, 대립되는 인간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화합하게 된 것은, 바로 신라의 지배이념을 초월 극복하려는 공통된 의식 때문이었다.

28) 「古都巡禮·慶州」(其八).

3. 檀君聖跡巡禮

3.1. 五千年 역사의 통찰

「檀君聖跡巡禮」는 1932년 7월 8일부터 23일까지 新安州에서부터 시작하여 誕降地 태백산(묘향산), 統治首都 平壤, 陵墓가 있었다는 江東, 말년의 거주지 九月山을 순례하고 돌아와 7월 29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제2차로 同年 10월 23일에 祭天壇이 있는 강화도 摩尼山 등지를 순례하여, 11월까지 연재를 계속하였는데, 解放 후에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²⁹⁾

*이러한 순례 여행은 그가 재직하던 동아일보사의 檀君立論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총독부 이용단체인 조선교육협회의 기관지인 『文教의 朝鮮』에 「所謂檀君傳說에 대하여」란 단군사적을 부인하는 논문이 일인 학자 小田省吾에 의해 발표되자, 동아일보에서는 사실로 이를 반박하고³⁰⁾ 崔南善으로 하여금 「檀君論」을 연재하게 하였다.³¹⁾ 또 同社에서는 檀君陵修築金募集 운동에 나섰고, 社會部長이었던 憑虛를 檀君聖跡巡禮차 통과시켰던 것이다.

渺邈한 上下 半萬年 東方文化의 淵源이시며, 生生化育, 二千三百萬 檀族의 靈과 肉의 母胎이시며, 黑龍江의 南, 黃河의 北, 東海의 西, 茫茫한 五千餘里에 開之拓之하신 神功聖蹟을 남기셨으니, 이 廣汎한 文化圈을 溯考하고 이 尨大한 地域圓을 奉審하자면, 정말 까마득한 노릇이다. 一年을 커녕, 十年은 커녕, 一生을 두고 誠과 熱과 力을 傾注하더라도 이 顯念의 萬分之一이나 아니 萬萬之一이나 達할까 말까.³¹⁾

이 서두에서, 東方文化의 淵源이며 우리 민족의 母胎인 檀君의 聖跡은 廣汎하고 尨大함으로 이를 溯考하고 奉審하는 일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는 단군성적을 통한 문화민족으로서의 自矜때문인 것이다. 그러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聖跡을 답사하여 묵시와 垂敎를 터득하겠다고 했다. 한 조각의 돌덩이 한줌의 흙이나, 對民의 口傳心書가 드러나는 이야기 한 토막이라도 그대로 새겨 遺則과 聖訓과 信仰心과 依支性의 편린을 찾아보겠다(p.6)는 자세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自矜과 단군성적을 대하는 신앙과 같은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경주 순례의 경우와 같이, 유물 유적에 대한 애정과 거기서 얻는 교감을 더 중시하여 역사를 실체로서 인식하려 했기 때문이다.

檀君聖跡巡禮를 통하여 憑虛는 우리 5천년 역사 전체를 한 마음으로 조망하고 있다. 단군 개국 이후 일제 당대에 이르는 시간 속에 민족 성씨의 역사를 현재에 접맥시켜 놓고, 과거의 화려

29) 1948년 2월 서울 예문관에서 간행됨. 이 글에 대한 출전은 이 책에 의할 것인데 페이지만 본문에 밝힐 것임.

30) 『동아일보사』(卷一), pp. 308~309.

31) 3월 3일부터 7월 15일에 걸쳐 77회에 걸쳐 연재함. 뒷책, P. 309.

한 역사와 황폐한 당대의 현실을 통일적으로 인식한다. 그가 단군성적 순례 도중 만났던 유물·유적에서 단군성업, 웅비의 고구려인의 기상, 수난의 조선조 역사와 韓末의 悲運 등, 단군 이후 한말 羅喆에 이르는 역사를 통시적으로 성찰한다.

이러한 역사의 통찰에서 일관된 작자의 태도는, 소멸되어가는 역사에 대한 갈등을 통하여 오히려 현실의 황폐함을 극복하려는 민족의식에 뿌리박혀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우리 檀族을 危에서 安하게하고 亡에서 興하게 한 이 山, 이 江, 이 場所에서 將軍의 石像은 安住의 窟을 잊지 못하고 구르고 구르다가 畢竟엔 首, 身, 支가 三分되어 櫛風沐雨하고 있던 말이냐. 그 對照의 慘이여! 崎嶇한 劫運이여! (p. 18)

② 그 偉大한 文化的 遺業—高句麗와 新羅에 와서 燦爛한 奪目の 色과(……) 막상 人天을 動하는 大果를 맞으랴 할 重大 時期에 지너지 못하고 凋殘과 零落에 마끼었으니 얼마나 惶恐한 일이. (……) 地獄劫과 塗炭苦를 열 萬번 더 치르고 더 겪어도 이 罪를 다 싹 치지 못하리라. 懺悔의 火鞭이 良心을 후려갈리매. (p. 35).

③ 丁卯年 蕩水에 그 宏大하던 建物이 휩쓸려 떠나가 버리고 지금은 影閣만 남았는데, 이 또한 半남아 頹頹하고 말았다. (……) 泗溟堂 惟政中央 西山清虛堂 休靜, 右側 雷默堂 處英의 影幀을 모셨던 龕室조차 군데군데 破綻되었다. (p. 49).

①에서, 舊安州邑의 옛성터 살수대첩의 승리 감회와, 七佛에서 護國神의 면모와, 청천강 가운데 있는 誤渡灘과 骨積島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역사와 고구려 군사들의 高揚된 寬大한 襟度를 생각하면서도(p.13), 부러진 을지문덕장군의 石像에서 민족의 현실에 대한 아픔을 통감한다. 단군굴 안에 들어갔다가 桓雄과 檀君의 位牌를 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위대한 위업에 비하여 凋殘과 零落에 떨어진 현실상황에 참피를 토로한다②. 이것은 民族的 自我와 人間으로서 본래적 自我의 부끄러움인 것이다. 酬忠祠에 들렀을 때, 丁卯年 蕩水에 건물이 휩쓸어 떠나 버린 채, 부서진 기와조각들과 影閣만 남아있고, 惟政, 休靜, 處英의 影幀을 모시고 있는 龕室조차도 파괴된 정황을 보고서, 임진란 당시 그들의 위훈을 상고한다③. 그들의 위훈을 表彰하기 위해, 正祖大王이 창건 賜額까지 내린 일을 도리켜 보면, 현실의 불모성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강화도 순례에서, 고려시대의 몽고병란, 조선조시대 병자호란의 역사적 상처뿐만 아니라, 내정의 암투로 金枝玉葉과 仁人義士가 群耶의 모함으로 유배되었다가 冤靈으로 화한 부끄러운 역사를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일제 세력이 침윤하지 못하고 島民들이 自作自給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마음 든든하다고 했다 (pp. 100~102). 이처럼 민족의 역사를 현실 상황에 조응하면서 결국에는 망국의 현실에 임하는 자세를 환기시킨다.

마지막 摩尼山 祭天壇 앞에서, 반만년 역사의 흥망성쇠를 돌이켜보면서, 羅喆선생이 시 한수로 민족의 미래에 대한 회원을 대신하였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통찰하는 가운데서, 興亡과 盛衰라는 역사의 回歸性에서, 발전적 역사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거나 황폐

한 현실을 위무하려는 도피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에 대한 참여자로서의 확신인 것이다.

3.2. 황홀한 상상력의 힘

역사와 관련된 산천이나 유물유적을 대할 때마다, 화려했던 과거와 소멸된 현재에 대한 아픔을 동시에 표출하는데, 이는 곧 미래 역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이르게 한다.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은 적극적 행동의 근원을 작동시켜 부끄러움에의 해방을 도모하게 하기 때문이다. 소멸되는 것에 대한 아픔과 비애를 극복 함으로써 재생을 예비하게 하면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이러한 점은 이 순례기 여러 곳에서 강하게 표출되는 다소 충동적인 황홀한 정서의 힘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유물 유적과의 교감에서 일어나는 황홀감은 곧 민족에 대한 自矜을 일깨워 주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모하게 한다.

① (……) 奇와 怪를 一身에 俱備한 돌 돌이, 하나가 아니오, 둘이 아니오, 萬으로 億으로 天下와 地上에 뿌리를 박고 妙相과 異趣를 가추가루 부리며, 林立倒生할 양은, 과연 形容에 絶하고 想像에 絶한 特異한 光景이다. (p. 65).

② 蜿蜒十餘里! 飄飄한 神韻과 襲襲한 鬼氣가 서리고 떠도는데, 妙와 巧와 精의 極致를 發揮한 一大彫刻의 總綜合이요 集大成이다. 이 彫刻이야말로 과연 生動한다. 그것은 靜한채 動하고, 流轉하며 固定한 別世界다. 千變萬化하며 常住永存하는 金剛世界다. (pp. 66~67).

동몽굴 내부를 보고 놀람을 표현한 이 글에서, 靜止되어 있는 사물을 動的으로 인식하고 있다. 굴 내부에 있는 종류석들의 林木倒生한 모습을 보면서, 형용할 수 없고,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절경이라고 황홀해 하고 있다. <유전하며 고정된 세계>, <천변만화하면서 상주영존하는 세계>라는, 靜과 動, 流轉과 固定, 千變萬化와 常住永存라는 양극적 인식은 비단 자연을 보는 눈에 한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 그대로이다. 이러한 절경에 대한 황홀과 찬탄 뒤에 바로 소멸의 비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다시 거기에서 역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념을 얻게 된다.

자연 절경에 대한 황홀한 찬탄은 금강굴, 금강폭포, 산주폭포, 용연폭포를 대하였을 때도 계속된다. 그 찬탄은 자연의 절경을 넘어 강서 고분벽화를 대했을 때 절정에 이른다.

① 이 層層마다 三角形마다 花草로 아로새긴 선을 돌렸는데 그 花草의 모양은 얼른 보면 같으되 仔細히 보면 花形과 葉狀이 壁마다 다르고 層마다 달라 文字 그대로 恍惚難測이다. (pp. 78~79)

② 나는 恍惚히 넋을 잃었다. 만일 一行이 없었던들 나는 그대로 흘러고 말았을는지 모르리라. (……) 돌에 무슨 붓으로 저렇게 그렸을까. 얼마나 돌을 다듬고 밀었으면, 저다지도 곱고 미끄러울까. 神品이 아니면 鬼工이 分明하다. 사람의 솜씨로야 生意인들 할 것이냐. (p. 80).

강서의 세 고분을 접했을 때 황홀했던 정감을 표현한 대목이다. 경주 유물 유적들이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 반하여, 고구려 유물 유적들이 너무나 참혹한 兵火 때문에 파괴되고 煙滅되고 말아서, 오늘날 그 때 文化的 편린이나마 찾을 길이 아득한 것을 한탄하기도 하였다.(p. 76). 그런데 이 벽화들을 대했을 때 그 충격은 恍惚難測이어서 神品이나 鬼工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품의 경치를 초월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황홀감은 죽어 매말라 있는 혼을 불러일으켜주면서 새로운 땅과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충격을 준다. 그러므로 소멸되고 있는 사적 유물을 대했을 때 한스러움이, 다시 살아 꿈틀거리게 될 역사에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을 남겨 준다. 그런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환상을 동반하게 된다.

(……) 지금은 數十戶 되는 한 小村이라던가. 그러나 저 浩茫한 不高不低의 벌판엔 그리 많은 造營의 功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十數萬戶의 大都市를 現出함이 그리 難事가 아니리니, 聖都의 舊址로 부끄럼이 없다 할 것이다. (……) 문득 白岳의 連峯을 쳐다보매, 御天하셨다는 思皇峯이 碧天을 뚫고 一瞬間 뚜렷이 壯嚴한 巨容을 나타냈다가, 고만 구름 속으로 녹아들고 말았다. (p. 97).

첫번째 단국성적 순례의 마지막날인 7월 23일, 九月山에서 下山하여 옛 이름으로 唐莊京이라는, 단군께서 평양으로부터 移都한 곳인 평양촌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 당시를 상상한다. 지난 도읍터에 대한 이러한 상상은, 소멸에 대한 再生의 양식과 통한다. 지금에는 수십호밖에 안되는 작은 동네를 바라보면서 十數萬戶를 상상하고, 御天하셨다는 思皇峯이 푸른 하늘을 뚫고 뚜렷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된다. 수십호에서 十數萬戶로, 황막한 천지에 홀연히 나타나는 思皇峯의 위용에서 한 때의 화려한 역사를 황홀한 상상력의 힘을 빌어 꿈꾼다. 이러한 장면을 소멸과 再生의 은유적 문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檀君聖跡巡禮는 사실 역사학도로서의 답사도 아니고 호사가로서의 여행도 아니며, 신문 기자로서 취재여행도 아니다. 또한 이 기행문은 평범한 문필가로서의 글도 아니다. 그것은 사실과 그에 따른 감상이 적절히 안배가 된 일반적인 기행문의 틀을 과탄시켜 놓으면서, 비애와 참회와 부끄러움과, 놀람과 황홀감에 싸인 환상으로 일관되어 있다. 즉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안목으로 이해하여 쓰지 않고, 그것을 문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두어 재구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사적이나 유물에 대한 순례기행문으로서 부적합한 것일지 모르나, 그것을 통하여 그의 문학적 상상력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 기행문과는 다른 문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은 역사에 대한 설화적 인식을 통해 더 구체화된다.

3.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그의 巡禮記에는 또한 많은 漢詩와 전설이 인용된다. 사적이나 유물 또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을 가진 자연 경경을 대할 때의 그의 감회는, 앞선 이들의 漢詩에 의지하여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고, 때로는 그 자신 작시도 하였다. 순례기에 인용된 시와 설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순례지</u>	<u>전설</u>	<u>文章</u>
七佛寺	· 護國神七佛전설	· 崔基南의 七言絶句
百祥樓		· 고려 충숙왕의 詩
清川江		· 自作詩
妙香山		· 李時恒의 詞
		· 雪巖大師의 詩
		· 淸虛(西山)大師의 詩
		· 洪良浩의 詩
		· 林將軍(慶業)의 詩
國盡窟	· 苻人の 建國說	
	· 天桂石 전설	
檀君窟	· 假檀君窟由來說	· 自作詩
金剛窟		· 淸虛大師의 漢詩
金剛폭포		
引虎臺	· 引虎전설	
上元庵	· 道僧과 龍전설	· 雪巖大師의 詩
		· 蒼巖과 金昌翁의 七言律詩
舍利塔牌文	· 단군 연무전설	
동룡굴	· 그 由來傳說	
檀君陵	· 단군굴 발굴 중시 전설	
東明聖王陵	· 東明王전설	
摩尼山祭天壇		· 羅喆의 詩

이처럼 檀君聖跡 순례에 있어 漢詩와 설화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 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논의한 바대로 몰락과 소멸히 현상에 재생의 힘을 불어넣 어준 황홀한 상상력과 호응되는 것이다. 이로써 역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은 시간을 초월하여 끝 없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는 사실이고 문학은 허구이다. 역사가 진실임을 확정시켜 주는 것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서이다. 그러나 그 객관성은 여러가지 제한성에 의하여 부분적 진실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 에, 그것을 보다 진실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초월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인간정신의 산물이란 점에서 바로 역사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³²⁾ 이

32) 서사시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Voltaire의 입장은 곧 설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L. Gossman, "Literature and History", R. H. Canary and H. Kozichi, eds. *The writing of History*,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9). pp.10-11.

러한 설화나 漢詩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명의 도구로서는 혹 반실증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인간의 경험계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식도구(Cognitive instrument)인 것이다.³³⁾

순례기에 인용되는 전설들은 모두 순례 대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행문의 소재로서 차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러한 전설을 신뢰하는 인식에 있다. 허구적인 설화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보다 절실하게 드러내려는 저의는,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으로 인식하려는 역사인식의 입장과 관계가 깊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면,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과 관련을 가진 <護國神七佛전설>이나, <檀君전설>(東明王전설)을 통하여 지나간 역사의 실상에 접근하려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隨兵들을 水葬시킨 七佛들의 이야기와 大捷을 거둔 고구려인의 기상을 노래한 餐霞居士 崔基南의 詩와(p. 9) 百祥樓의 아름다운 정경을 노래한 고려 忠肅王의 詩를 통하여 變換한 역사와 依舊한 자연에 대한 교차된 감회며(pp. 10~11), 청천강을 끼고 돌며 용출하는 강물의 변하지 않은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人事의 무상함을 시를 통해 표현한다.³⁴⁾

이 詩는 고구려의 옛 기상과는 반대로 현실의 영락함에 따른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연약하고 가냘픈은 역사를 감상적으로 인식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는 바로 안스러움과 아픔을 통해 새로운 것을 도모하려는 자세인 것이다.

묘향산에 들어가서는 그 절경을 읊은 李時恒의 詞와 雪巖大師의 詩를 생각하였고(pp. 22~23), 淸虛(西山)大師의 四名山 詩이 過譽가 아님을 확인하였다(p. 23). 이러한 승경을 대할 때, 塵念과 俗事가 사라진 심신이 羽化나 된듯한 경지에 이르는데, 이는 바로 자연과의 交感에서 일어나는 황홀함이다.

여러 편의 漢詩를 인용하였으나 결국에는 羅喆의 詩에서³⁵⁾ 마무리 된다. 檀君聖跡 순례의 대단원이 바로 이 詩에 이르러 맺어진다는데, 본 순례기의 문학적 의미가 있다.

『檀君聖跡巡禮』는 단군의 사적 곧 우리 역사의 자취를 순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어떤 여행의 기록보다도 역사적 사실의 바탕에서 쓰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전편을 통하여 오히려 문학적 정감과 상상력이 실증적 태도보다 앞서 있다. 그것은 史의 기행으로서는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점이 정지된 史蹟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면서, 곁에 드러나지 않은 정신적 상황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 나타낸 글이 아니라, 그 史蹟이 현실에 작용하고 있는 그 총체성을 그린 것이다. 또한 황홀함과 感傷과 상상력은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건강한 것이 못될 수도 있으나, 그것들이 오히려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를 주므로써 힘있는 것이 된다는 데 이 글의 의미가 있다. 결국에 인용된 羅喆의 詩는 그 힘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33) L. O. Mink, "Narrative form as a Cognitive instrument", វិច្ឆ, pp.130~131,

34) 浪浪長江東逝水 浪花淘盡英雄. p.20.

35) 參星壇上拜吾天 天祖神靈赫赫然. 廣開南北東西地 歷溯四千三百年. 倍達族光從古闡 大綜道脈至今傳. p.108.

4. 역사의 이념화와 그 문학

『古都巡禮·慶州』에서, 찬란한 신라의 문물과 소멸되어 버린 역사의 자취를 보면서 아름다운 애상에 젖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예술적 탐닉은 彌述嶺전설의 현실적 의미를 통하여 극복된다. 무영탑전설의 사랑도 예술과의 화합을 통하여 그 의미가 드러나며, 소설 「무영탑」에서는 신라를 구할 인물인 경신과 사랑과 예술이 화합됨으로 현실의 지배이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

『檀君聖跡巡禮』는, 개국 이후 당시까지 역사의 현장을 통해 흥망성쇠의 역사를 비애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갖고 보면서, 우리 국토와 역사적 문물에 대하여 황홀함과 더불어 상상력을 통해, 역사를 문학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서 연유하는데, 결과 결국 역사를 이념화하게 된다.

사적이나 유물, 국토의 아름다움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주정적 인식은, 민족역량의 회복이란 주의적 의식과 합치되면서 민족문학의 이념으로 승화된다. 즉 〈文은 실상인즉 氣〉³⁶⁾라는 그의 문학사상의 근거에 닿게 된다. 이러한 知, 情, 意의 종합으로써의 氣는³⁷⁾ 그의 문학의 주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주정적 인식과 주의적 인식이 서로 상반되면서도 또한 그것이 통일되어, 〈人生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文學〉에 이를 수 있게 된다.³⁸⁾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고 그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상정이다. 더구나 그 자연이 국토일 때, 그 즐거움은 더할 것이다. 또한 뛰어난 문화유산을 보고 경외스러워하고, 황홀해 하고, 그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것도 진실임에 틀림이 없다. 더구나 찬란한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손으로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와 자연과 사적에 대한 주정적 인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상황을 뛰어넘어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의미가 더해진다. 여기에 역사적 자아, 민족적 자아로서 진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학에서 知, 情, 意는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진실을 탐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역사가 이념화되며, 그러한 역사의식은 역사소설의 한계성을 드러내게 만든다.³⁹⁾ 그러나 애앗긴 나라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작가는 이점을 외면할 수도 없다. 이는 바로 〈조선혼〉과 〈현대정신〉에 귀착된다. 역사소설 작가로서 현진건은 작가의 몫과 민족 일원으로서의 몫을 동시에 감당하려 했기 때문에, 문학으로서 한계성을 지니게 되지만 또한 문학의 예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무영탑」, 「黑齒常之」, 「웃는 褒姒」를 썼다.

36) 현진건, 「沈默의 巨匠, 玄鎮健의 文學縱橫談」, 『文章』 10, p. 118.

37) 조동일,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8), p. 365.

38) 현진건, 「이러쿵 저러쿵」, 『開關』 44, p. 120.

39) 김윤식,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소설문학』, 1985. 5월, pp. 317~318.

Summary

The Aesthetics of the Alternation of
Success and Decline

—A Trip of Hyun Chin-gun to the Country—

Hyun Kil-un

Hyun Chin-gun has consistently sough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ety and self under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lony. He makes a pilgrimage to the historical spot in order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Its record is well expressed in two books, *The Pilgrimage to the Ancient Capital, Kyungju* and *The Pilgrimage to Tangun's Holy Remains*.

In the former he investigates the hidden racial spirit by recognizing the history newly under the reality of today along with the travel to Kyungju. He looks for the generating power which enables him to create a new world out of the declining reality. In this way he pursues the unification of art and politics.

In the latter he transcends the devastated reality through the productive imaginative power about the beautiful mountains and streams and about the historical relics and remains by gaining an insight into the history since the first Korean state founded by Tangun. This power of transcendence makes a history idealized and leads to the task of the restoration of national prestiges of the national literature.